

朴 亨 鍾*
鄭 慶 均*
韓 達 鮮*

韓國農村男便들의 家族計劃行爲에 관한 研究

△ Ⅰ. 緒 論
Ⅱ. 調査方法 및 資料
▽ Ⅲ. 主要發見
Ⅳ. 結 論

Ⅰ. 緒 論

家族計劃은 婦人만의 責任일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日本을 除外한 거의 모든 나라의 家族計劃은 主로 女性만을 相對해 왔으며, 동시에 調査努力도 婦人들만을 相對로 하였으며 男便들의 行爲分析은 等한히 하여왔다. 이것은 한마디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家族計劃의 方法中 男性方法이 여러가지가 있고 또 女性方法이라 하더라도 男便의 協助가 必要하며, 더구나 韓國文化는 避妊實踐與否와 子女數決定에 있어서 男便의 意思決定權이 아직도 크게 支配하고 있기 때문이다.

1962年度에 家族計劃事業을 着手한 以來, 지금까지 이 分野에서 數百件的의 調査가 實施되었으나 그들 모두가 婦人만을 相對로 한 것이었으며, 筆者들이 아는 限, 男便을 面接한 調査는 姜吉遠外에 依한 調査와 더불어 이것이 두번째로 試圖된 것이며, 특히 農村男便을 對象으로 한 調査로서는 이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本調査의 資料는 1973년 9월 江原道 春城郡 新東面에서 山間地域의 火田民을 除外한 東內地域一圓의 49歲까지에 이르는 有配偶可妊女性을 調査하면서, 一部 마을들의 男便全數를 面接한 것이며, 婦人들에 관한 分析報告¹⁾는 이미 發表한 바 있고, 이것은 男便들 만의 資料를 分析한 것이다.

本調査에서 使用된 設問紙의 構成과 分析은 從來의 이른바 家族計劃實態調査라 불리는 KAP 類型을 格本적으로 脫皮하지는 않았으나, 지금까지 KAP 調査가 지니고 있는 測定道具上的 弱點을 補完하기 위하여 知識과 態도의 變數를 여러개의 變數로 分離하였으며, 아울러 意思決定의 問題와 커뮤니케이션要因 등 家族計劃과 관련된 社會的 行爲도 함께 다루었다.

從來의 KAP 調査에서 知識이라 함은 “당신은 지금까지 家族計劃 또는 避妊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하는 質問으로 計測한 것이며, 避妊方法에 대한 知識도 “××란 避妊法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Ever heard” 상태를 知識이라고 단순히 取扱하여 왔으며, 態度 역시 “당신은 家族計劃을 贊成하십니까 또는 反對하십니까?”라는 質問에만 依存해 왔기 때문에 一例를 들면(家族計劃研究院 1973 出生力調査) 知識은 98% 水準, 態度는 96% 水準

*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 同地域에서 實施된 婦人에 對한 調査報告書는 이미 發刊되었다. Hyung Jong Park, K.K. Chung & D. S. Han, *A Study on Some Behavioral Problems in Sequential Processes of Adoption in Family Planning*, Seoul,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December, 1974.

을 나타내는 것으로 報告되고 있고, 이와같이 높은 水準의 知識과 態度에 比해 實踐率이 36%밖에 되지 않는다 하여, 이른바 KAP Gap의 問題에 상당한 신경을 써왔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知識과 實踐간의 間隔이 그처럼 98%對 36%도 아니고, 또 態度와 實踐의 間隔도 96%對 36%가 아니라고 우리는 본다. “들어본 바 있다는 것이 어찌 家族計劃의 知識일 수 있겠으며, 또 “家族計劃에 贊成한다”는 단순한 反應이 어찌 態度일 수 있겠는가 하는 反問을 던져볼 때 적어도 實踐할 수 있는 知識, 實踐과 有關한 態度를 測定할 수 있는 道具의 開發이 必要하다.

그리고 實踐指數에 있어서도 實은 問題가 있다. 特히 그것이 「콘돔」이나 「리듬」, 먹는피임약 등 一時的인 方法일 경우는 不規則的으로, 不正確하게 使用하는 例가 許多하여 그것을 과연 實踐이라 해야 옳을런지 分辨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行動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그것도 엄연한 實踐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飲水避妊法, 性交後挑躍避妊法, 性交時女性의 興奮抑制避妊法, 「싸론파스」나 「껌」에 의한 避妊行爲, 「안티프라민」避妊法, 漢藥避妊劑, 침술避妊行爲 등의 諸般 民俗의 避妊法에 의한 避妊行爲者도 行動이라는 面에서는 다 함께 考慮되고 나서, 有效避妊行爲率과 無效避妊行爲率을 別途로 分析해야 할 것이라는 主張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 尙간에 이런 그릇된 避妊行爲者가 늘고 있다는 조짐으로 보아 머지않아 이런 그릇된 行爲를 교정해 줘야할 必要性이 新規受容者의 모집 못지않게 절실하게 될런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처럼 從來의 KAP는 그 各 變數들이 너무 단순하게 取扱된 데서 올바른 K와 A와 P를 診斷하기는 어려웠다고 본다. 따라서 그의 補完의 必要性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도 아직 本調查에서 는 이를 만족할 程度로 해결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그 改善을 위한 試圖의 하나로써 적어도 知識과 態度에 관한 限, 解剖的인 構成變數로 分割測定하여 보았다.

적어도 家族計劃에 관한 限, 男便과 婦人의 狀態를 共同診斷하는 接近과 그 測定道具의 開發의 必要性을 느끼면서 이 調查를 試圖하였으며, 앞으로 이 方面에 관한 깊이있는 研究가 더욱 必要함을 느끼게 되었다.

Ⅱ. 調查方法 및 資料

本 調查를 實施한 江原道 春城郡 新東面은 地理的으로 東內地域과 新南地域의 二個地域으로 크게 分割되어 있는데, 그 中 東內地域도 장안마을을 중심으로 部落이 集中되어 있는 外에 山間마을과 그 周邊에 흩어져 있다.

婦人에 대한 面接은 山中의 火田民을 除外한 東內地域 49歲까지의 有配偶婦人을 모두 對象으로 하였지만, 男便에 대한 面接은 東內地域의 장안마을을 중심으로 한 平地住民中에서 滿 49歲까지의 婦人을 둔 男便全員을 對象으로 하였으나 面接時期가 한창 農繁期인 1973年 5月20日부터 6月末까지여서 2~3次 訪問으로도 만날 수 없는 男便은 除外되고, 434名의 男便만이 面接되었다.

面接에 使用된 設問紙의 大部分은 婦人面接紙의 內容과 大同小異하였으며, 同一한 設問이 多數 包含되어 있어서 夫婦에 대한 比較測定을 目標로 하였으나 上述한 바와 같이 面接時期가 좋지않아 夫婦가 모두 面接된 例는 385에 不過하다. 따라서 同報告書는 面接된 全體 男便의 경우를 모두 分析한 것이며 같은 時期에 같은 地域에서 調查된 婦人群에게서 얻은 指數와 比較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아, 중요한 指數에서는 婦人群과 男便群의 것을 間接的으로 比較하였다.*.

從來 KAP 調查에서 使用된 設問에 依하면 夫婦各各의 群에서 큰 差異를 보이지 않지만, 同調

査에서는 前記한 바와같이 知識과 態도의 몇가지 構成要素別로 深度있는 側面을 測定하였기 때문에 婦人群의 諸指數와 男便群의 그것들이 흥미있는 對照를 보이고 있는 點도 적지 않았다.

男便을 面接한 設問紙에서도 나름대로 細分된 知識과 態도를 파악하기 위한 設問들과, 또 行爲에 영향을 주는 Communication에 관한 變數들도 포함되어 있다.

收集된 資料는 우선 Cross Tabulation에 의해서 意味있는 變數들의 平面的인 相關關係만을 보았는 바 그 主要發見은 다음과 같다.

Ⅲ. 主 要 發 見

1. 男便들의 家族計劃 常識

避妊方法에 관한 常識

一般的으로 避妊法에 관한 男便들의 知識水準은 婦人들의 그것보다 떨어지지만 婦人들에 比하여 男性避妊法에 대한 知識水準은 다소 높은 便이다. 들어본 일이 있다는 程度의 知識水準에서 보아도 女性避妊法에 관한 限 男便들의 知識水準은 꽤 떨어진다. 또한 “그러한 避妊法이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아니라” 그 方法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고 느낄 程度의 水準에서 보아도 男便들의 知識狀態는 婦人들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낮은 形편에 있다.

가령 루우프의 경우, 婦人들은 97.9%가 들어본 바 있고, 79.7%가 자세히 안다고 한 데 比하여 男便들은 82.9%가 들어본 바 있고 不過 36.6%가 자세히 안다고 하였을 뿐이며, 먹는피임약에 대해서도 婦人들은 97.0%가 들어본 바 있고 73.5%가 자세히 안다고 답하는 데 比하여 男便들은 87.6%가 들어본 바 있는 데에 不過 33.4%가 자세히 안다고 대답하고 있었다. 이러한 傾向은 기타의 女性避妊法에 관한 限, 마찬가지로 狀態를 보여주고 있지만, 다만, 精管切除나 콘돔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

먼저 精管切除에 대한 知識을 보면, 男便들은 93.5%가 들어본 바 있고 53.0%가 자세히 안다고 답한 데 比하여, 婦人들은 86.2%가 들어보았고, 58.0%가 자세히 안다고 하였으며, 콘돔은 男便中 90.8%가 들어보고, 72.4%가 자세히 안다고 하는데 比해 婦人들은 75.4%가 들어보고, 60.8%가 자세히 안다고 하였다.

Table 1. Knowledge of Rural Husbands on the Contraceptive Methods

Contraceptives	Never heard (1)	Ever heard (2)	Know in detail (3)	Those who have ever heard only the name (2)-(3)
The word F.P. or Contraception	1.4	98.6	N/A	N/A
Loop	17.1	82.9	36.6	46.3
Oral pill	12.4	87.6	33.4	54.2
Vasectomy	6.5	93.5	53.0	40.5
Condom	9.2	90.8	72.4	18.4
Rhythm	52.5	47.5	28.1	19.4
Basic Body Temperature	91.7	8.3	3.2	5.1
Withdrawal	72.1	27.9	24.9	3.0
Tuballigation	87.1	12.9	4.4	8.5
Diaphragm	93.5	6.5	1.8	4.7

Table 2. Levels of Wives knowledge about each of Main Contraceptive Methods

Contraceptive	Percent of wives who		
	have ever heard of	Professed detailed knowledge about	have correct knowledge about
Loop	97.9	79.7	61.6
Oral pill	97.0	73.5	55.3
Vasectomy	86.2	58.0	39.6
Condom	75.4	60.8	
Rhythm	46.3	31.7	
Tubal ligation	23.3	19.7	

避妊方法別 使用者에 대한 認知

人間이 새로운 態度나 行爲를 받아드리기 위하여는 社會的 認准을 必要로 하며 이웃의 受容과 非受容이 곧 個人의 그것과 병행하는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男便들은 과연 마을 안에서 이웃의 家族計劃實踐與否를 어느 程度로 알고 있는가를 보기 위하여 避妊方法別로 이웃中에서 實施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 가를 보았다.

Table 3에 의하면 男便들은 거의 모든 方法에 있어서 이웃중 實踐者를 아는 경향이 低調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女子避妊法 使用者에 對해서는 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婦人이 避妊하고 있는것은 男便들 끼리 서로 얘기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었보인다. 卽 루우프 使用者를 한 명 以上 아는層은 全體 男便中 12.9%이고, 먹는피임약 使用者를 아는 層은 17.5% 月經週期法의 경우 不過 6%, 卵管結紮은 겨우 1.6%가 한두명을 알고 있을 뿐이면서, 男性避妊法인 精管切除한 者를 아는 男便은 12.9%에, 콘돔使用者를 아는 者는 24.4%나 되었으며, 陰外射精法 利用者를 아는 경우는 不過 0.2%로서, 이 地域에서는 이웃中 콘돔이 비교적 盛行하는 편이라서 콘돔 使用者를 아는 率이 더 높게 나타난다.

Table 3. Number of Users Known Among Husbands by Contraceptive Methods

Contraceptives	Number of users known						Total
	N/A	No one	1~2 persons	3~4 persons	5~6 persons	Many	
Loop	17.1	70.0	3.7	3.2	3.0	3.0	100.0
Oral pill	12.4	70.1	6.0	4.1	2.5	4.8	99.9
Vasectomy	6.5	80.6	10.1	2.1	0.5	0.2	100.0
Condom	9.2	66.4	3.5	6.2	4.6	10.1	100.0
Rhythm	52.5	41.5	1.4	1.8	0.5	2.3	100.0
Withdrawal	72.1	27.6	0.2	—	—	—	99.9
Tubal ligation	87.1	11.3	1.6	—	—	—	100.0

2. 男便들의 家族計劃姿勢

避妊方法에 대한 姿勢

避妊方法에 대한 男便들의 姿勢역시 콘돔을 除外하고는 모든 方法에 대해서 좋다는 側보다는 나쁘다는 側이 훨씬 많다. 우리는 지금까지 家族計劃 知識指數가 높은 것을 긍정적으로만 받아드

렸고 따라서 낮은 實踐率과의 넓은 격차만을 염려하여 왔으나, 이런 姿勢로 보아, 國民이 가지고 있는 家族計劃, 특히 避妊方法에 대한 常識은 오히려 否定的 內容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點에 留意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왜 그토록 모두가 알면서도 實踐하는 率이 낮으냐?”고 하는 質問은 成立될 수도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문제는 KAP Gap의 論難에서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나쁜 知識, 否定的 知識을 가진 者에게 實踐을 期待한다는 것은 마치 緣木求魚처럼 어리석은 期待에 不遇한 것이다.

그렇다면 男便들의 避妊方法別態度는 어떠한가? 婦人들을 相對로 한 過去의 모든 調査가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方法에 對해서 否定的 態度가 肯定的 態度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루우프에 대한 態度를 보면 좋다고 答한 男便이 13.4%, 44.9%가 나쁘다고 答하고, 24.6%가 좋은지 나쁜지 전혀 모른다고 하였다. 먹는피임약에 대해서는 21.2%가 좋다고 하고 38.0%가 나쁘다고 하였으며, 精管切除가 좋다고 答한 층은 不遇 19.0%인데 比해서 무려 50.5%가 나쁘다고 하고, 24.0%는 無意見이었다. 이 地域에서는 콘돔이 비교적 好評을 받고 있어서 콘돔이 좋다는 층이 50.2%로 두드러지며, 나쁘다는 층이 18.7%에 21.9%가 無意見이었다. 대체로 콘돔과 병용되는 月經週期法에 대해서도 23.7%가 좋다고 하고, 10.6%가 나쁘다고 하였다.

거의 모든 方法에 있어서 婦人들에 比하여 들어보지도 못한 男便의 數가 많아 婦人들의 態度와 直接的인 比較는 하지 않더라도, 여하튼 夫婦 共히 거의 모든 避妊方法에 對해서 나쁘다는 否定的 知識을 가지고 있다는 點에 留意하여 앞으로의 啓蒙戰略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家族計劃自體에 대한 態度는 贊成 94.9%에 反對 1.6%, 경우에 따라 贊成이 3.5%였지만, 이런 反應은 의미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詳述할 必要가 없을 줄 안다.

Table 4. Husbands' Attitudes toward Contraceptive Methods

Contraceptives	N/A	Good	Bad	No idea	Total
Loop	17.1	13.4	44.9	24.6	100.0
Oral pill	12.4	21.2	38.0	28.4	100.0
Vasectomy	6.5	19.0	50.5	24.0	100.0
Condom	9.2	50.2	18.7	21.9	100.0
Rhythm	52.5	23.7	10.6	13.1	99.6
Withdrawal	72.1	7.1	14.5	6.2	99.9
Tubal ligation	87.1	3.2	8.3	1.4	100.0

理想子女數와 男兒選好

男便들의 理想的 子女數는 婦人들의 그것에 比하여 그리 두드러지는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男兒選好의 態度는 婦人들보다 男便들이 약간 더 강한 것 같다. 男便들은 理想的 子女數로서 아들 1.8名, 딸 1.1名, 아들딸 상관없이 0.4名을 원하여 모두 3.3名을 指摘하고 있는데, 婦人들은 아들 1.9名, 딸 1.1名, 아들딸 상관없이 0.6명으로 모두 3.6名을 理想的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婦人들의 理想子女數가 男便들이 말하는 것보다 약간 많다.

그러나 男兒選好에 있어서는 婦人들은 아들을 얻을 때까지 계속 妊娠을 하겠다는 것이 49.8%인 데 比하여, 男便들은 53.7%가 그런 反應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들을 바라다가 딸이 계속 생길 경우 몇명에서 中斷하겠느냐는 質問에 있어서도, 婦人들은 9.8%가 딸 2명 이후, 24.5%가 딸 세명까지 11.9%가 딸 네명까지 11.9%가 그래도 아들이 안 생기면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比해서 男便들은 딸들에서 포기하겠다는 층은 8.1%에, 딸 셋까지 25.1%, 딸 넷까지 10.1%가 그때까지 아들이 없으면 그런대로 포기하겠다고 答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전혀 假想的인 設問에

답한 것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現實인양 誇大解析을 하여 온 點을 反省하면서, 男兒選好가 出產力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現實的으로 測定하는 道具의 開發에 더욱 힘써야 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이런 類의 男兒選好의 態度를 調查하는 質問은 그 自體가 너무나 虛構的이어서 答辯하는 內容도 꿈을 꾸듯 非現實的이라는 點을 反省해 볼 必要가 있지 않을까 싶다.

老後依存態度

男便들의 保守的인 態度는 老後 子女에의 依存態度에서도 나타난다. 늙은 후 아들家族과 함께 살기를 願하는 것을 보면 男便들은 78.8%가 그렇게 대답하는데 비해 婦人들은 72.1%가 아들家族과 살겠다고 하였으며, 婦人들 중에서는 또 21.4%가 夫婦 따로 살겠다고 하는데 비해서, 男便중 따로 살겠다는 態度를 가진 層은 21.0% 뿐이었다. 딸의 家族과 살겠다는 者는 婦人(0.5%)이나, 男便(0.2%)이나 큰 差 없었다.

물론 따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약 20%나 된다는 自體가 상당한 社會變化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 老後依存態度 如何는 男兒選好의 價値와 同層이어서 매우 의미있는 變化로 볼 必要가 있다.

婦人の 어머니會活動에 대한 男便의 反應

男便들의 答辯에 하의면, 27.7%가 婦人の 어머니會 加入與否를 모른다고 하였으며, 10.5%는 非會員이라고 하고, 61.9%가 會員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加入돼 있는 男便들의 反應을 보면 4.1%는 너무 자주 나간다는 不滿이고, 55.2%는 꽤 부지런히 나가는 편이라고 하며, 36.2%는 가끔 나간다고 하고, 4.5%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한편 婦人の 어머니會 活動自體를 어떻게 보느냐는 質問에서는, 加入婦人の 男便中 91.4%가 贊成하고 7.8%는 無關心이며 反對는 0.7%뿐이었다. 反對하는 男便이 워낙 적기 때문에 더 論及할 것이 없지만 不平하는 理由는 “말이 많아져서”, 또는 “집안 일을 輕視”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會”와 마찬가지로 家族計劃 아버지會같은 것을 組成하는 데 대한 意見을 물어본 즉 75.7%가 意味롭다고 하고, 24.3%는 잘 모일 것 같지 않다고 하였다. 現在 地域社會 안에는 鄉土豫備軍, 民防衛隊, 마을 開發委員會, 班常會 등 여러가지 組織이 있기 때문에 따로 어떤 男子組織을 만든다는 것이 現實的인 「아이디어」는 되지 못할 것 같으나, 同調查를 實施한 1973年 5月 그때의 反應으로는 以上과 같이 약 3/4이 흥미를 보였다.

家族內的 意思決定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婦人一邊途的인 接近을 하였으며, 家族內的 意思決定權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事實이다.

韓國의 傳統은 물론 거의 모든 問題에 있어서 그 決定이 媳父母, 또는 男便에 의하여 決定되었으며 婦人들의 身分은 매우 낮은 位置에 있었다. 그러나 社會變化와 더불어 상당히 많은 問題에 있어서 婦人들의 意思決定權이 크게 向上된 것이 事實이지만, 아직도 男便의 積極적인 反對에 봉착했을 때는 婦人の 意思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본다.

이런 調査서는 子女數決定과 家具를 장만할 때와, 子女教育問題, 그리고 婦人の 옷을 살 경우의 意思決定權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여기에 提示되는 指數가 똑같은 夫婦의 雙을 이룬 가운데서 夫婦主張의 差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같은 時期에 같은 地域에서 같은 設問紙로 조사된 男便群과 婦人群의 應答을 比較한 것으로써, 이 속에 365케이스는 같은 夫婦가 包含되어 있다.

어쨌든 表 5에서 보면 모든 問題에 있어서 夫婦가 合議해서 決定하며, 男便이나 婦人 어느 한 쪽에서 獨斷的으로 決定하지는 않는 것이 確實하나, 具體的인 問題들에 있어서 男便들의 生覺과

婦人들의 生覺間에는 興味있는 對照現象이 엿보인다.

첫째, 大體로 男便들은 夫婦 어느쪽이든 獨斷的 意思決定權을 덜 主張하는 데 比해서, 婦人들은 男便 혼자서 決定한다든가 또는 婦人 혼자서 決定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소 더 强하다. 다시 말해서 男便들은 “집사람과 상의해서 決定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데 比하여, 婦人들은 “男便 혼자서 決定한다든가 또는 婦人 혼자서 決定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多少 더 濃厚하다.

둘째 男便들은 自己 父母의 意思決定權을 덜 重要視하거나 덜 問題視하는 데 比해서, 婦人들은 媳父母의 決定權을 男便보다 더 問題視 또는 重要視하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婦人들이 媳父母의 입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쓴다는 뜻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도 媳父母의 影響力은 매우 弱한 것이 事實이며, 大體로 夫婦合議下에 決定하는 경향이 强하다.

그러나 子女數決定이나 家族計劃實踐與否에 있어서 男便 獨斷的으로 決定하는 家庭이 대략 1/4 이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男便들의 主張에 의하면, 自己獨斷으로 決定한다고 應答한 者가 23.3%이고 婦人들의 應答으로는 男便 혼자의 意見으로 決定한다는 것이 29.2%나 되었다. 여기서 質問한 네가지 領域中 子女數 決定에 있어서의 男便의 영향력이 가장 强하게 作用하고 있는 것을 意味있게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즉, 네가지 領域別로 볼 때, 男便들의 反應에 의하면, 子女數決定에 있어서 男便 혼자서 決定한다고 한 것이 23.3%이고, 家具 장만時 17.3%, 子女教育에 관해서 14.3%, 婦人이 옷을 살 때 6.0%로서 男便의 영향력이 子女數決定과 家族計劃에 있어서 가장 强하게 作用하고 있는 點을 重視하여야 하겠다는 뜻이다.

Table 5. Decision-maker in Various Area as Responded by Husband and Wife, respectively

Area	Decision-maker as responded by husbands					Decision-maker as responded by wives				
	Husband	Wife	Couple's Consensus	In-laws	Total	Husband	Wife	Couple's Consensus	In-laws	Total
No. of children to have	23.3	6.9	68.2	1.6	100.0	29.2	15.2	52.3	3.3	100.0
When purchasing furnitures	17.3	8.1	66.5	8.1	100.0	24.5	10.8	51.9	12.8	100.0
About Children's Education	14.3	15.4	66.4	3.9	100.0	20.3	17.1	57.0	5.6	100.0
When purchasing wife's cloth	6.0	51.5	37.2	5.3	100.0	9.2	57.2	25.6	8.0	100.0

No. of Husbands=434

No. of wives=935

※ Out of these two groups, 365 Couples are included.

2. 男便들의 家族計劃 커뮤니케이션行爲

메세지에의 露出

家族計劃 「커뮤니케이션」行爲는 實踐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絶對的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家族計劃 「메세지」를 전달할 만한 모든 媒體別로 그 靈出狀態를 보면 대체로 滿足한 狀態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라디오」, 이웃, 夫婦間의 「채널」이 比較的 機能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 地域 住民들은 85.3%가 「라디오」를 所有하고 있고, 男便中 61.2%, 婦人中 43.6%는 거의 每週 「라디오」를 통해서 家族計劃에 관한 「메세지」를 듣는다고 하였지만, 그 外 TV, 신문, 잡지 등의 「매스·미디어」는 큰 機能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會議, 移動施術班, 이웃 등의 세가지 채널을 除外하고는 其他 모든 「미디어

아」를 통해서 男便들이 婦人들보다 더 많이 家族計劃 「메세지」를 대하고 있다.

그러나 會議種類나, 이웃간의 對話, 移動施術班을 통하여는 婦人들이 男便들보다 더 家族計劃 「메세지」를 대하고 있는데, 會議는 역시 그 活動이 활발하지는 않으나, 어머니會 等 婦人들 만을 對象으로 하는 모임이 있어서 婦人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家族計劃 얘기를 男便들보다 더 듣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婦人中 55.7%가 아직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程度로 이 地域 어머니會 活動은 微温의이었으며, 移動施術班 역시 73.0%는 단한번도 보지 못한 形편에 있었다. 거의 모든 調查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역시 가장 큰 機能을 하는 것은 곧 이웃간의 對話인 Interpersonal Communication 이었다. 婦人中 15.7%는 이웃과 한번도 家族計劃 얘기를 나눈 일이 없다고 하였으나 나머지는 33.0%가 거의 每週, 22.5%가 거의 每月 이웃과 家族計劃 얘기를 나누고, 16.6%는 일년에 몇번 程度, 12.2%는 지금까지 몇차례 程度로 낮은 對話頻度를 보이고 있다.

男便들의 世界에서도 전체 69.6%가 이웃과 家族計劃 얘기를 나눈 일이었고, 15.0%는 每週, 17.0%는 每月, 23.0%는 일년에 몇번, 14.3%는 지금까지 한두차례 程度로 얘기한 일이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行動(Act)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웃과의 對話에 있어서 婦人들은 약 55.5%가 매우 활발한 편인데 比하여, 男便들은 그것이 32% 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男便들은 다른 모든 종류의 「미디어」에는 婦人들보다 더 露出되어 있으면서도 行動과 直結되는 이웃과의 對話에서는 婦人들보다 뒤지고 있는 點이 注目된다.

그리고 모든 「커뮤니케이션 채널」중 가장 마지막 단계이면서 行動의 방아쇠를 당기는 夫婦간의 對話가 約 1/4의 家庭에서는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역시 傳統的인 一面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으나, 約 45%의 家庭에서는 夫婦간의 家族計劃對話가 매우 활발한 편이다. 男便들의 應答에 依據하면 21.9%가 婦人과 거의 每週 家族計劃 얘기를 나누고 있고, 24.7%는 거의 매달,

Table 6. Frequency of Husbands' Exposures to F. P. Message Through Various Media

Media	Never	A few times so far	A few times A year	Every month	Every week	Total
Radio	4.6	6.5	8.3	19.4	61.2	100.0
T.V.	71.2	7.1	5.3	9.0	7.4	100.0
Newspaper	57.4	9.0	8.1	17.0	8.5	100.0
Happy Home	76.7	6.7	11.5	4.6	0.5	100.0
Magazine	65.7	12.2	13.8	7.8	0.5	100.0
Film & Slides	63.8	21.7	13.8	0.5	0.2	100.0
Poster	38.7	29.3	23.7	7.1	1.2	100.0
Pamphlet	69.4	16.4	11.7	2.3	0.2	100.0
Meeting	69.4	12.9	14.7	3.0	—	100.0
Public Lecture	75.8	17.1	6.7	0.2	0.2	100.0
Mobile Van	84.6	10.1	5.1	—	0.2	100.0
Neighbors	30.4	14.3	23.3	17.0	15.0	100.0
F. P. Worker	53.2	17.1	18.2	11.0	0.5	100.0
Wife	25.1	10.6	17.7	24.7	21.9	100.0
Doctor	96.5	3.5	—	—	—	100.0
Pharmacy	97.5	1.8	0.2	0.2	0.2	99.9
Li Chief	75.6	7.4	13.5	3.2	0.2	99.9

N=434

17.7%는 一年에 몇번, 10.6%는 지금까지 한두차례 婦人과 얘기한 일이 있으며, 25.1%는 단 한번도 婦人과 家族計劃얘기를 한 일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比較해서 婦人群의 應答도 대체로 비슷하나, 婦人들은 32.1%가 거의 매주, 15.3%는 거의 매달, 13.8%는 일년에 몇번, 12.3%는 지금까지 몇번 男便과 家族計劃 얘기를 나눈다고 하였다. 그 외에, 가족계획 傳播에 있어서 醫師나 藥師의 役割은 實로 보잘 것 없다.

Table 7. Frequency of Wives' Exposures to F. P. Message Through Various Media

Media	Never	A few times so far	A few times A year	Every month	Every week	Total
Radio	12.1	8.3	12.2	23.7	43.6	99.9
TV	85.8	4.6	4.0	3.2	2.4	100.0
Newspaper	81.0	5.5	6.2	4.5	2.8	100.0
Happy Home	77.3	7.5	8.9	6.2	0.1	100.0
Magazine	74.7	8.4	10.2	6.5	0.2	100.0
Film & Slides	81.5	13.6	4.5	0.4	0.0	100.0
Poster	46.4	22.4	20.4	8.4	2.4	100.0
Pamphlet	74.3	13.3	9.9	2.4	0.1	100.0
Meeting	55.7	13.6	21.0	9.7	0.0	100.0
Public Lecture	82.4	10.5	6.6	0.5	0.0	100.0
Mobile Van	73.0	17.6	8.6	0.8	0.0	100.0
Neighbors	15.7	12.2	16.6	22.5	33.0	100.0
F. P. Worker	30.2	15.0	29.3	22.3	3.2	100.0
Husband	26.5	12.3	13.8	15.3	32.1	100.0

N=935

이웃간의 勸告

從來 家族計劃態度라 하면 흔히 以上에서 다룬 몇가지 變數外에 男女別 理想的 結婚年齡이 더 包含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實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러가지 側面的 態度나 意見에 관한 考察은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本研究에서는 實際行爲와 관련되는 몇가지 側面을 알아보았는 바 그 몇가지 樣態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남에게 家族計劃을 勸誘한 經驗

자기가 하던 안하던, 남에게 家族計劃을 하라고 勸告하거나, 또는 反對로 하지 말라고 勸告하는 行爲를 했다면, 이런 行爲야말로 家族計劃에 관한 分명한 態度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男便 應答者들중 67.7%는 勸誘해 본 일이 없고, 기타 32.3%는 남들에게 勸誘한 經驗을 가지고 있는데, 21.2%는 保健所에 갈 것을 勸誘하였으며, 0.2%는 어머니 會長宅을 찾아가라고 勸誘하였고, 10.8%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웃들에게 家族計劃을 하라고 勸告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具體的으로 어떤 方法을 권하였다면, 적어도 그네들의 그 方法에 대한 態度는 好意的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이 권한 方法을 보면, 먹는 피임약과 콘돔이 각각 3.9%이며, 2.8%가 精管切除를 권하였고, 나머지는 루우프(1.4%), 두가지 이상 方法을 함께 추천한 경우(1.2%), 月經週期法(0.7%), 기타(0.2%)의 順이고, 하라고는 하였으나 特定方法까지는 권하지 않은 경우가 17.7%이었다.

2) 家族計劃 反對者를 만난 經驗

이번에는 反對로 자기가 家族計劃勸誘를 이웃으로 부터 받은 바 있는지를 알아보았는 바, 59.0%는 肯定的인 勸誘者만 만났다고 하였으며, 2.5%는 否定的인 勸誘者를 만났고 5.8%는 반대하는 者와 찬성하는 勸誘者를 모두 만난 일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婦人들의 世界를 보면 69.0%가 肯定的인 勸誘者만, 3.6%는 否定的인 勸誘者만 만났으며, 9.5%가 양쪽 勸誘를 다 받은 바 있다고 하였는 바, 역시 婦人들끼리 家族計劃과 관련해서 贊反間에 모두 서로 권고하는 경향이 더 강하였다. 男便들에 대한 動機造成이 약하였던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현상이긴 하지만, 그런대로 男便들 世界에서도 家族計劃을 反對하는 者는 극히 적고, 서로 實踐할 것을 꼭 활발하게 勸告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反對者를 만났을 때 그 半數 以上(55.6%)이 그냥 듣고만 있지 않고 逆으로 勸告하였다.

Table 8. Contraceptive methods advised for Neighbors to Practice

Methods advising	N/A	Loop	O.P.	Vasectomy	Condom	Rhythm	More than Two	Other	Not specific method	Total
Percent	68.2	1.4	3.9	2.8	3.9	0.7	1.2	0.2	17.7	100.0

Table 9. Service sites advised to visit

Service sites	N/A	Doctor	Health center	Mothers' Club Leader	Not Specific Place	Total
Percent	67.7	0	21.2	0.2	10.8	99.9

避法妊에 對한 風聞에의 露出

韓國은 어느 地域이나 各種避法에 대한 興흥한 風聞이 팽팽해 있기 때문에 同調査地域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고 그러한 風聞은 婦人들간에만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男便들의 世界에도 꽤 돌고 있는데, 男便들은 避法方法自體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쪽이 婦人에 比하여 훨씬 많기 때문에 風聞에 露出된 比率도 婦人들처럼 높지는 않으나, 일단 노출된 男便中에는 역시 좋다는 風聞보다는 나쁘다는 風聞에 더 노출되어 있다.

이를 方法別로 보면, 특히 루우프에 대해서는 35.9%가 나쁘다는 소문만 들은데 反해서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男便은 2.1% 뿐이었으며, 먹는피임약도 25.1%가 나쁘다는 얘기만 들었고 5.5%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精管切除에 대해서는 역시 男性方法인지라 더 많이 듣고 있는데, 42.9%가 나쁘다는 말만 들은데 比하여, 좋다는 말은 6.0%에서 들었고, 콘돔은 12.4%가 나쁘다는 말을, 13.6%는 좋다는 말을 들었는 바, 이 地域은 역시 앞에서 보았듯이 콘돔이 好評을 받고 있고 또 많이 使用되고 있었다. 地域別로 方法에 대한 기호가 다르다는 사실은 여러 調査에서 지적되고 있는 터이다.

Table 10. Exposures of Husbands to Rumors on the Contraceptive Methods

Contraceptives	Never heard	Bad	Good	Both	Total
Loop	59.2	35.9	2.1	2.8	100.0
Oral pill	66.4	25.1	5.5	3.0	100.0
Vasectomy	49.0	42.9	6.0	2.1	100.0
Condom	73.7	12.4	13.6	0.2	99.9
Tuballigation	99.8	0.2	—	—	100.0

家族計劃의 實踐

男便들의 家族計劃에 대한 無關心은 實踐與否를 묻는 質問에서 여지없이 들어난다. 그 斷的인 例가 夫婦別 反應上의 差異에서 나타나는데, 즉 “현재 가족계획을 실천하고 계십니까”고 물으면 婦人들 중에서는 “모른다”는 答辯이 하나도 없는 데 反해서, 男便들 중에서는 무려 31.3%가 “현재 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家族計劃은 그야말로 男子가 알 일이 아니라는 態度를 나타내는 좋은 例가 된다. 뿐만 아니라 現在 實踐중이라는 答과 非實踐중이라는 答이 婦人群에 比하여 男便群에서 훨씬 떨어져 있는 것도 흥미롭다. 즉 男便群이 答하는 낮은 實踐率은 婦人들 중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홀로 實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男便들이 答하는 非實踐率이 낮은 것은 婦人이 무엇인가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男便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처럼 지금까지 女性一邊途로 接近한 結果 이웃과의 對話에서 男便들이 뒤지고, 自己 夫婦가 現在 家族計劃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도 모르는 現實을 招來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斷面을 如實히 보여주는 것은 또한 과거에 하다가 中斷했다는 應答에도 나타난다. 즉, 男便들중에서는 過去에 하다가 中斷했다고 答한 者가 尙작 15.9%인데, 婦人群에서는 27.0%에 이르고 있으며 男便들중에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答한 31.3% 중에는 대개가 “과거 하던 것 같은데, 현재 하고 있는지 어떤지조차 모르는 狀態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男便들에 대한 啓蒙이 時急함을 指摘하는 좋은 例가 된다.

한편 男便들이 答하는 家族計劃實踐狀況變數와 몇가지 要因과의 關係를 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1. Current Status of Family Planning as responded by Husbands Group and Wives Group

Respondent	N/A*	Currently Practicing	Ever used	Never used	Don't know	Total (N)
Husbands	1.4	25.8	27.0	15.9	31.3	99.9(434)
Wives	—	41.3	21.5	37.2	—	100.0(935)

* Those who have never heard *Family Planning*.

家族計劃實施者 認知狀態와 自己實踐

이웃 중 특히 自己가 屬하는 人間分派內에서 他人의 家族計劃實踐與否에 대한 認知狀態는 그 個人的 行爲와 매우 깊은 關係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男便들의 世界에서는 婦人들에 比하여 이웃들과 家族計劃對話를 훨씬 덜 하는데, 이번에는 또 對話를 나누면서도 具體的으로 實踐하는지의 與否에 대한 對話는 忌避하는 현상이 두들어진다. Table 12에서 볼 때, 이웃과 家族計劃 얘기를 나누는 바 있으면서도 이웃중 實踐者를 단 한명도 모르는 사람이 48.7%나 되고 있으며, 이웃과는 전혀 얘기해 본 일이 없으면서도 이웃 중 實踐者를 알고 있는 者가 12.1%있었던 바, 아마도 이들은 婦人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다. 이 地域婦人들의 應答에 의거하면 現在 家族計劃實踐中인 者는 41.3%나 되는데도, 이웃 중의 實踐者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全體 男便中 60.6%(婦人中 32.5%)나 된다는 것은 확실히 男便들간에서는 自己의 家族計劃 實踐與否에 대한 對話가 一種의 禁忌이거나, 또는 워낙 男便들 중에는 自己 自身이 實踐中인지 어떤지조차 모르는 者가 많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問題라고 生覺된다.

男便들이 알고 있는 自己夫婦의 家族計劃實施態自體가 不確實하기 때문에 다른 要因과의 關係도 確實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點을 前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要因에 關한 變數에의

Table 12.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Users Known by Exposure to Neighborhood Communication on Family Planning

Number of Practicing Persons known	Neighborhood Communication on Family Planning		Total
	Never talked	Ever talked	
No one	116(87.9)	147 (48.7)	263 (60.6)
1 person or more	16(12.1)	155 (51.3)	171 (39.4)
Total	132(100.0)	302(100.0)	434(100.0)

應答도 男便의 그런 特性과 程度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狀態에서의 同質的 反應이라고 보아, 다른 要因과의 相關性을 보는 것도 전혀 無意味하지는 않을 것이다.

Table 13에서 보면 역시 이웃중 實踐者를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 實踐하는 경향이 엇보인다. 즉 이웃중의 實踐者를 전혀 모르는 群에서는 現在 實踐中이라는 者가 19.8%인데, 1~4名을 아는 群에서는 實踐者가 32.9%, 5명 以上을 알고 있는 群에서는 36.8%로서 두드러진다. 이로 미루어 實踐者를 이웃 중에 露出시킬 수 있는 「코뮤니케이션」上的 戰略이 매우 奏効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Table 13. Family Planning Status by Awareness of the Number of Practicing Neighbors as Responded by Husbands

F. P. Status	Practicing persons known			Total (N)
	No One	1~4 persons	5 or more persons	
Never user	61.6(162)	26.3(20)	24.2(23)	47.2(205)
Current user	19.8 (52)	32.9(25)	36.8(35)	25.8(112)
Ever user	18.6 (49)	40.8(31)	38.9(37)	27.0(117)
Total	100.0(263)	100.0(76)	99.9(95)	100.0(434)

이웃간의 對話와 家族計劃實踐

男便들의 이웃間的 家族計劃對話與否는 實踐率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Table 14에서 보면 이웃과 家族計劃對話가 전혀 없었던 群에서는 現在 實踐中이라는 者가 15.2% 밖에 없는데, 가끔 하는 群에서는 22.7%가, 그리고 자주 얘기한다는 群에서는 39.6%나 된다. 이처럼 이웃과 家族計劃對話가 빈번할수록 더욱 實踐하게 되는 것도 事實이고, 또 反對로 自身이 實踐하는 사람 일수록 이웃과 더 얘기하는 傾向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를 미루어서 역시 男便들간에도 家族計劃實踐과 관련있는 對話를 陽性化하도록 하는 戰略의 考慮가 必要함을 말해준다 하겠다.

Table 14. Family Planning Status by Frequency of Neighborhood Communication on Family Planning

F. P. Status	Never	Once in a while	Frequently	Total (N)
Never user	72.7	44.2	26.6	47.2 (205)
Current user	15.2	22.7	39.6	25.8 (112)
Ever user	12.1	33.1	33.8	27.0 (117)
Total	100.0(132)	100.0(163)	100.0(139)	100.0(434)

夫婦間の 對話와 實踐

夫婦間の 家族計劃對話頻度は 그 實踐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 夫婦間の 對話는 모든 「코뮤니케이션 채널」의 가장 窮極的이면서도 또한 實踐現場과 直結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아쇠의 효과에 比喩되기도 한다. 물론이 또한 家族計劃을 實踐하는 경우 對話를 더하게 되는 경향도 있겠지만, 그 頻度別로 實踐率이 다른 것으로 보아, 對話를 더할수록 實踐을 더한다는 해석이 可能할 수 있다.

表 15에서 보면 夫婦間에 전혀 家族計劃 얘기를 나누는 일이 없다는 群에서는 現在 實踐中이라는 것이 8.3%인데 比해서, 가끔 나누는 群에서는 22.0%가, 그리고 자주 하는 群에서는 37.6%가 現在 實踐中이었다. 여기서 夫婦間の 家族計劃에 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實踐을 하고 있거나(8.3%), 또는 과거 하다 中斷했다고(5.5%)하는 者들의 生活場面은 실로 理解가 가지 않으나, 사실 아직도 韓國의 農村社會에서는 심지어 夫婦間에도 家族計劃對話가 曠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傾向이 짙다.

Table 15. Family Planning Status by Frequency of Husband-wife discussion on Family Planning

F. P. Status	Never	Once in a while	Frequently	Total (N)
Never user	86.2	60.2	18.3	47.2 (205)
Current user	8.3	22.0	37.6	25.8 (112)
Ever user	5.5	17.9	44.1	27.0 (117)
Total	100.0(109)	100.0(123)	100.0(202)	100.0 (434)

男便年齡群別實踐狀態

年齡群別 家族計劃實踐狀態를 보면, 40~44歲群에서 46.4%로 가장 실천률이 높고, 다음이 35~39歲群의 31.3%이다. 한편 과거 실시하다 중단한 者들이 男便年齡 35~39歲群에 제일 많으며(42.0%) 25~29 歲群에서와 40~44群에서는 各各 21.2%와 21.7%를 이루고 있는 것이 興味롭다. 表 16에 의하면 男便年齡 30代에서는 하다 말다 하다가 40代에 들어서서 子女數가 一定數에 達하면 그때 가서 다시 實踐하는, 그런 樣相을 엿보이는 것 같다. 한편 家族計劃狀態別 平均年齡을 보면 非實踐群과 現在實踐群의 그것이 똑같이 38.5歲이며, 過去 實踐하다 中斷했다는 群의 그것은 37.7歲였는 바, 非實踐歲의 平均年齡이 높은 理由中의 하나는 非實踐群 속에는 年齡이 낮은 者도 많지만 特히 45歲以上으로서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 多數(36.6%)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Table 16. Family Planning Status by Age of Husbands

F. P. Status	-24	25~29	30~34	35~39	40~44	45+	Total (N)
Never user	81.8	63.5	44.4	26.8	31.9	68.8	47.2(205)
Current user	9.1	15.4	25.9	31.2	46.4	13.8	25.8(112)
Ever user	9.1	21.1	29.6	42.0	21.7	17.4	27.0(197)
Total	100.0(11)	100.0(52)	99.9(81)	100.0(112)	100.0(69)	100.0(109)	100.0(434)

避妊法에 對한 態度와 實踐

男便들 약 69%는 적어도 한가지 以上の 避妊法에 대해서 好意的인 態度를 가지고 있는데, 具

體的으로 51.8%는 한두가지 方法에 대하여, 14.1%는 3~4가지 피임법에 對해서, 그리고 3.0%는 대어섯가지 即 거의 모든 避妊法에 對해서 好意的인 態度를 가지고 있다.

男便들의 意思決定權을 고려할 때, 特定避妊法에 對한 男便의 態度는 곧 그 夫婦의 實踐에 相當한 影響을 미칠 것이라는 點은 쉽게 假定할 수 있다.

表 17에서 보면, 과연 好意的으로 생각하는 避妊法이 많을수록, 그런 群中에서 現在 實踐하는 率이 높다. 즉, 한가지 方法도 찬성하지 않는 男便群中에서 現在 實施中인 者는 不過 12.6%인데 比해서, 한두가지 또는 서너가지를 贊同하는 群에서는 각각 31.1%가 現在實踐中이고, 다섯가지 以上の 好意的인 方法을 가지고 있는 群에서는 46.2%가 現在實踐中이라고 하였다. 그와 反對로 好意的인 方法이 단 한 가지도 없는 群에서는 75.6%가 지금까지 전혀 家族計劃을 해 본 일이 없다.

그리고 전혀 실천해 보지 않은 群에서도 約半數의 男便이 적어도 한가지 以上の 方法에 對해서 好意的인 態度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참으로 「아이러닉」하다. 좋다고 믿는 方法이 적어도 한가지는 있는데도 왜 실천하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는 子女나 아들이 없거나, 願하는 數에 이르지 않아 아직 實踐할 立場이 아닌 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겠지만, 行動의 契期, 이른바 Cue to action이 마련되지 않아 行動을 착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現在 實踐群 中에도 15.2%는 단 한가지 方法도 滿足치 못하고 있는 바, 이들의 계속 실천여부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나머지 약 85%는 그런대로 한가지 以上の 方法에 對하여 好意的인 態度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하다가 中斷한 群에서는 13.7%가 단 한가지 方法도 好意的이지 못하였고 나머지는 적어도 한가지 以上の 好意的인 方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다가 中斷한 者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역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男便들은 自己自身이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서 별 부담없이 괜찮다고 응답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여기의 應答이 모두 자신의 진정한 態度를 表明하였는지는 의심스러우나, 만일 진실한 反應이었다면 實踐動機가 아직도 男便들 中에는 약한 處地에 있다는 解釋이 可能해 진다.

Table 17. Family Planning Status by the Favorable Attitudes toward the Number of Contraceptives as Responded by Husbands

F. P. Status	None	1~2 methods	3~4 methods	5 methods+	Total (N)
Never user	75.6	35.1	31.1	38.5	47.2 (205)
Current user	12.6	31.1	31.1	46.1	25.8 (112)
Ever user	11.8	33.8	37.7	15.4	27.0 (117)
Total	100.0(135)	100.0(225)	100.0(61)	100.0(13)	100.0 (434)

VI. 結 論

비록 農村의 1個 地域에서 實施된 것이기는 하지만, 男便들을 相對로 家族計劃實態를 調査한 일이 거의 없었다는 뜻에서 이번 調査는 多少 興味로웠다.

一般的으로 從來의 家族計劃實態調査가 매우 皮上的인 側面을 計測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事業樹立上 案內役割을 크게 하지 못했던 點을 反省하고, 加급적 効用性있는 調査領域과 그런 道具의 開發이 必要함을 더욱 느꼈다. 韓國 家庭 안에서는 아직도 大部分의 主要意思決定이 男便에 의하

여 이루어지는 점은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되겠으며, 그런 意味에서 男便들의 實態를 알아본다는 것은 뜻있는 일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從來 Ever heard Knowledge 만을 測定하다 보니 98%가 이른바 知識을 가진 것같이 우리의 判斷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단순히 들어보는 程度를 넘어서서 보다 具體的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또 그릇된 知識이 아니라 正確한 知識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調査道具의 개발도 매우 必要하다는 點을 절실하게 느꼈다. 왜냐하면, 國民들이 어떤 點은 다 알고, 어떤 點을 共通的으로 모르는지를 깊이있게 파악함으로써, 事實接近의 方向과 內容을 現實的으로 案內할 수 있는 調査라야간, 調査가 지니는 본래의 役割을 수행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點을 머리에 두고 實施한 이번 調査를 통해서 얻어진 몇가지 發見中 特히 다음의 몇가지 點을 再吟味해보고 싶다.

1. 一般的으로 家族計劃에 對한 男便들의 常識은 婦人들에 比하여 훨씬 떨어지는데 다만 콘돔과 精管切除等의 男性避妊法에 對한 常識만은 婦人들보다 다소 낫았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같이 避妊法하나 만에 對한 常識으로 곧 實踐에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웃들의 實踐에 對한 認知狀態等 社會的準據의 見地에서 볼 때, 男便들의 常識이나 姿勢가 우리들이 期待하는 것과는 꺾먼 거리에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事業에서는 男性을 對象으로 하는 啓蒙事業을 더욱 強化하여야겠는바, 豫備軍事業, 軍을 對象으로 하는 事業 또는 新設된 民防衛隊教育에도 家族計劃을 삽입하는 努力을 試圖해 봄직하다.

2. 위의 問題와도 關聯이 되는 얘기지만서도, 男便들의 姿勢는 婦人들의 그것에 比하여 훨씬 保守的이었다. 避妊法에 對한 그들의 見解만 보아도, 좋다는 立場을 취하고 있는 것은 루우프에 對해서 13.4%, 먹는 피임약 21.2%, 정관절제 19.0% 程度였으며, 다만 콘돔은 50.2%가 좋다고 답하고 있는 바, 이 地域에서는 콘돔에 對하여 比較的 好意的이었다. 그 외 거의 모든 避妊法에 對해서도 나쁜 內容들을 알고 있을 뿐이어서 婦人들의 實踐마저도 장려하기 보다는 만류하는 立場이었다. 週邊에서 모든 方法別로 成功的인 實踐者를 찾아내어 豫備軍教育이나 民防衛教育時에 家族計劃 얘기를 할 수 있도록 各 部落別로 이네들을 訓練하는 그런 事業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다.

理想的의 子女數는 婦人들의 그것에 比하여 그리 두드러지는 差異는 보이지 않지만, 男兒選好의 立場은 婦人들 보다 약간 더 保守的이었다.

그리고 어머니會加入婦人의 男便中 91.4%가 贊成하고 7.8%는 無觀心에 0.7%만이 反對하고 있어서, 婦人들의 社會參與에 對해서 매우 好意的의었는바, 이런 點은 進就的인 社會變化의 한 斷面을 보여주는 듯 싶었다. 한편 家族計劃을 爲한 男便들의 組織을 別途로 만들었을때에 參與할 意向도 75.7%에서 적극적으로 表現하고 있었으나, 婦人들과는 달리, 韓國의 各 部落에는 男性의 既存組織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會처럼 아버지會를 따로 만들 必要까지는 없겠지만, 豫備軍, 民防衛隊, 開發委員會, 班常會 등을 利用하는 特殊事業의 開發이 必要하다고 보여진다.

3. 앞서서도 누차 지적하였거니와 男便들의 家族計劃行爲는 거의 忙覺地帶에 놓여있다는 印象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우선 男便들 間의 家族計劃對話狀態가 그렇고, 이웃의 實踐을 알고 있는 狀態도 그렇거니와, 自己夫婦의 實踐與否를 묻는 데서도 무려 31.3%가 “自己家庭”에서 現在 家族計劃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조차 모른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理解가 가지 않는 點이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오히려 당연한 歸結이 아닐까도 싶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韓國의 家族計劃事業이 너무도 婦人一邊途로 接近하였기 때문에 男便들의 吾不關하는 態度는 어쩌면 당연한 結果가 아니겠느냐는 말이다. 이처럼 방관자의 位置에 있는 男便들을 參與者의 立場으로 이끌어 주는 事業上의 배려가 切實하다 하겠다.

Role of Husbands in Family Planning

by Hyung Jong Park*

Kyung Kyoon Chung*

Dal Sun Han*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determine what role husbands play in family planning decision-making and behavior. The data are from the mothers' club survey conducted by th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73.

The sample consisted of 25 communities, each with approximately 50 eligible married women up to age 49. All eligible women in each community were interviewed for a total of 1,051. Of these, 907 responses were analyze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Nearly 98 per cent of the rural husbands interviewed said they had heard the terms family planning or contraception. As might be anticipated, the husbands had more frequently heard about major male methods than major female methods. Over 90 per cent of the husbands heard of vasectomy and condoms, and more than 80 per cent heard of oral pills and loops. Less than half had heard of such methods as rhythm, withdrawal, tubal ligation, basic body temperature, and diaphragm.

Those methods that were most frequently heard of by the husbands were also most frequently reported as being known in detail. The condom ranked first (72%), then the vasectomy (53%). About one third reported detailed knowledge about the loop and pill and about one fourth for the rhythm and withdrawal method.

2. The wives had more frequently heard of major female methods than male methods. Nearly 100 per cent had heard of pills and the loop, 86 per cent heard of vasectomy, and 75 per cent heard of condoms. Although not a predominantly used method, twice as many women as men had heard of tubal ligation.

The methods most frequently heard of were also most frequently known in detail by the wives. For the loop, 80 per cent professed detailed knowledge, oral pill 75 per cent, vasectomy 58 per cent, and condom 61 per cent.

The survey for the wives also included questions to measure the actual degree of correct knowledge for three methods, which was generally lower than the self professed level of knowledge.

3. Regardless of the type of method used, most husbands did not know anyone else using that method. 10 per cent of the vasectomy acceptors knew one to two others

*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practicing, and 10 per cent of the condom acceptors knew more than five or six other users.

4. The husbands' attitudes towards various contraceptive methods are as follows; nearly half thought the loop, oral pill, and vesectomy were bad methods. About 20 per cent also thought the condom was bad. Condoms were by far the most approved method, with 50 per cent reporting it was a good method. About one-fourth said the oral pill and rhythm were good and about one-fifth said the loop and vasectomy were good methods.

5. The husband and wife reports of who made decisions in four areas were consistently different. For the four decision areas (number of children to have, furniture purchasing, childrens' education, and wife's clothing purchases), the wives reported the husbands were sole decision-makers more frequently than did the husbands. The wives also reported themselves as sole decision-makers more often than did the husbands, and the husbands reported mutual decision-making more frequently than did the wives for all four decision questions.

6. The radio was found to be by far the most frequent source of family planning messages for the husbands. 61 per cent reported hearing family planning messages every week by radio. Also 22 per cent of the husbands reported their wives as a weekly source of exposure.

On a monthly basis, wives were the most frequent source of information (25%), followed by the radio, newspapers, radios, and neighbors. The sources which had never provided family planning messages were doctor (97%), pharmacy (98%), mobile van (85%), Li chief (76%), and public lectures (76%).

7. The most frequent source of family planning messages for wives was also the radio (47% heard weekly messages), but to a much lesser extent than for the husbands. Also, 33 per cent of the wives reported the neighbors as a weekly source of information.

The radio, neighbors, and family planning field workers were a monthly source of messages for about one-fourth of the wives. The media which were never sources of family planning messages were television (86%), public lectures (82%), newspapers (81%), and films and slides (82%).

8. A large percentage of the husbands had never heard rumors about any methods. 49 percent had never heard of any rumors about vasectomy, and nearly 100 per cent had never heard any rumors about the tubal ligation. Most of the bad rumors were heard about vasectomy (43%), loop (36%), oral pill (25%), and condom (12%). Good rumors were heard mostly about the condom (14%).

9. The husbands' and wives' reports of family planning practice status revealed a great deal of disagreement, except for the category of "ever users". Husbands reported only 26 per cent were currently practicing compared to 41 per cent of the wives. 37 per cent of the wives compared to 16 per cent of the husbands reported "never used". And 31 per cent of the husbands compared to 0 per cent of the wives reported they

did now know.

10. Of those who talked about family planning with their neighbors, only 12 per cent knew of one or more people practicing family planning. But of those who had discussed family planning with neighbors, 51 per cent knew of one or more family planning users.

11. Those husbands who were current or ever users tended to be aware of more practicing neighbors than those who were never users. 62 per cent of the never users were not aware of any neighbors who practiced, but nearly 40 per cent of both the current and ever users were aware of five or more people who were practicing.

12. Those husbands who were current or ever users more frequently talked with neighbors about family planning than never users. 73 per cent of the never users never talked about family planning, whereas only 15 and 12 per cent of current and ever users never discussed it with neighbors. Of those who talked frequently with neighbors, 40 per cent were current users, 34 per cent ever users and 27 per cent never users.

13. Those couples who were current or ever users more frequently communicated with each other about family planning. Of the never users, 87 per cent never discussed it, but only 8 and 6 per cent of the current and ever users never discussed it. But frequent husband-wife discussions occurred in 38 per cent of the current users, 44 per cent of the ever users, but only 18 per cent of the never users.

14. The majority of the men in the younger age groups (up to age 29) and older age groups (over 45) had never practiced family planning. Very few of these men were current or ever users. The majority of the husbands in the middle age group (30 to 44) were either current or ever users.

15. Of those husbands who did not approve of any methods, 76 per cent were never users. The husbands who approved of one to four methods were quite evenly divided as one-third never, one-third current, and one-third ever users. Of those who approved of five or more methods, 46 per cent were current users, 39 per cent never users, and 15 per cent ever users.

Of these major findings, the most striking is the large discrepancy between the husbands' and wives' reported practice rates. One possible interpretation of this is the husbands' lack of sense of responsibility for family planning. This outcome might be expected, though, from a national family program aimed at women and which almost completely excluded men until quite recently. It is advisable to reconsider the female-orientated approach, and develop instead a more balanced approach which emphasizes both male and female responsibility for family planning. It is a mistake to risk the possible negative repercussions to the program by excluding men when they are still the major decision-makers in the majority of Korean households.